

2025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0.16.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2	2	12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구종상, 이경화, 김광석,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2	-	-	2	14	-	1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4	-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KT 소액결제 피해 부천에서도...범행 수법·주체 오리무중,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통신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대응만 있을 뿐~ 이번 사고의 정확한 실태, 해킹 가능성, 대응 경과 등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연합뉴스TV에서 전반적으로 기사를 정리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전계순 위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 [프리즘1]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킹...금융권·이통사 비상, [프리즘2] 갈수록 중요해지는 개인정보..."기본권 수준으로 격상해야", [프리즘3] 정부·국회, 강력 대처 나선다..."징벌적 과징금도" 주제로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았습니다. <25.9월 조치>	'25.9월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대재해처벌법 3년...처벌 강화에도 줄지 않는 산재,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 지원예산 대폭 확대, 위험성 평가 안정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공공조달 계약시 무사고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목소리,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정부의 정책 입안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김병수 위원)	뉴스 프리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다뤘는데,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보도의 하나의 테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물론 그 보도를 단발적으로 리포트나 단신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뉴스프리즘이나 이런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서 한번씩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5.9월 조치>	'25.9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5. 01. 01.~ '25.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대운변호사	-	18.7.1.~26.6.30
안지연	1989.06.27	(현)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	23.02.01~27.01.31
최미연	1983.09.05	(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	24.09.01~26.08.31
김정원	1993.03.07	(현)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	25.09.01~27.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5. 1. 1.~ '25. 12. 31.)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구종상	현)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전)MB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언론 학술	
부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위원	김광석	현)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문화 단체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워치, '美 의회 조사국,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 악영향' 단순한 외신 전달을 넘어, 외교·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국제 뉴스였습니다. 다만, 사건 배경과 국내 대응, 양국 간 감정의 실제 온도 차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파급력과 여론의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구성 이 추가된다면, 시청자가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종상 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사안이 마무리된 다음에 미 의회 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로 짚막하게 인용하는 단신 기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도	와이드0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오늘 네트워크 장비 복구' 이번	저희가 이 기사에 관해서는 여러 번 나간 것 중에 전국부인 지방에서 사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는 국가 주요 정보 인프라의 위 기상황을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공공 안전과 디지털 행정 신뢰'라는 주제 의 중요성을 잘 환기한 리포트 입니 다. 다만, 정부 중심의 복구 소식에 머물러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 방지 및 생활 현장의 체감 불편을 함께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 다. 이를 함께 짚었다면 더욱 공적 책임성과 완성도 높은 재난 리포트 가 되었을 것입니다.(구종상 위원장)	건현장에 나가서 사안이 터진 첫날부 터 끝날 때까지 어떤 경과를 전달하 는 여러 기사 중에 한 건이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우리아이 뽀테스트] 기획 돋보이고 QR코드로 사진 전송 참신, 시청자 참여 코너로 마련된 [우리 아이 뽀테 스트] 기획 돋보이고 QR코드로 우리 아이 사진자랑 참여방법까지 참신하 지만, QR코드와 아래 내용을 접속해 본 결과 "이 파일 요청은 종료 또는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은 수 부위원장)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의 사진 과 영상을 받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됐습니다. 연휴 이후 저장공간을 정리하였습니다. 현 재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 니다.	○		
기타 *시청자 불만활용	[연합뉴스TV 해시태그 키워드] 온라 인상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모든 언론사가 #(해시태그)를 통해 뉴스의 키워드를 클릭하면 유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고 연합뉴스 TV도 모든 뉴스에 해시태그가 달려 있음.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연합뉴스TV의 뉴스 하단에 있는 해 시태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클릭 해도 키워드 관련 뉴스로 이동하지 않고 있음. 확인 부탁드립니다.(최은 수 부위원장)	해시태그는 기존에는 텍스트에만 그 쳐서 기능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연 결되는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 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 후에 타사 와 같이 유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시태그 값이 적용되어 기능 적용 중이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뉴스를 이용하 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잇 구하림인터뷰 중 리정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이 된 리정은 글로 벌 스타댄서이자 K팝 대외 안무가이 자 블랙핑크, 에스파 등 우리나라 대 표 걸그룹 안무를 담당한 인물임. 유 명안무가로 인정받아 세계무대에 진 출한 성공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하림의 '뉴스잇' 인터뷰 섭 외를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내부적으 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을 출연하는 그런 코너 가 아니라 핫한 인물들이 출연하고시 청자를 대신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저 희가 인터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케더헌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제작 3년전부터 초안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성공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뷰사회자는 리정안무가의 성공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질문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부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 답답함을 가졌습니다.(이경화 위원)	다.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더 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질문에 들어갔으면 인터뷰가 더 알찰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	썬속뉴스(9월 29일). 운전석에 아이 태우고(1분 07초) 영상을 보면 유아유튜버가 아이를 운전석앞에 앉혀 놓은 채 시내 운전하는 장면 4컷입니다. 심지어 아이얼굴이 오픈카 위로 내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연합뉴스TV에 제안합니다. 이런 행위는 한번만 해도 걸린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가 있어서 제보자만 있다면 처벌(면대면 주의, 및 추가행위시 구속등의 방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절차는 아동안전의식 조성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이경화 위원)	‘썬속뉴스’ 아이가 왜 운전석에 있는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나 입수해서 그 영상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가볍게 터치하는 쇼츠 포맷의 유튜브 코너입니다. 보도가 나간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은 못했지만 강한 댓글경고 같은 게 엄청나더라고요. 꼭 저희가 직접 경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댓글만 봐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도	[현장잇슈]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줄이려면 어떻게?!...1세대 카레이서 '꿀팁' 받아보니, 고령운전자의 사고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거나, 개인 사정상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습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안전교육을 받으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교육 방송 또는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도 고령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감소 관련 저희 콘텐츠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같이 차도 타면서 어떻게 해야지 안전사고 감소를 할수 있는지 직접 해보는 그런 현장형 콘텐츠였습니다. 고령 운전이 여러 가지 위험하긴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정비나 또는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콘텐츠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런 류의 콘텐츠들을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위원)	도 꾸준히 만들어 경각심을 갖게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경제읽기] 결국 백기 든 카카오...친구 탭 원상복구, 프로그램 특성상 외부 경제평론가를 초대하여 방송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가능하시면 경제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자사(自社) 경제부 기자도 틈틈이 출연하여 연합뉴스TV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김광석 위원)	‘경제읽기’ 코너는 일반적으로 경제평론가들이 출연해서 한 20분 정도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저희 기자들도 가끔씩 동석을 해서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안이 큰 경우 기자들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자가 별도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 기자들이 출연하는 코너들도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출연을 더 많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 채널 및 콘텐츠가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보도	롯데카드 대표 "재발급 100만명 밀려...주말까지 해소될 것"(전계순 위원) 롯데카드측의 '내부 관리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도와 현재 재까지 진행된 소비자 보호 처리 대응, 조치 등 현황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연합뉴스TV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IT강국이라는 브랜드가 무색하게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다양한 보안문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등 국가 사이버에도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공공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은 내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향후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전계순 위원)	최근 국내에서 해킹 등 IT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요구 등의 리포트를 제작했지만 롯데카드를 비롯한 기업과 기관들의 해킹 문제점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일 최고가 경신...‘성큼’ 다가온 코스피 5천 시대 지난 스페셜 387회에 이어 동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이익 보장 등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선진국처럼 투자자 중심의 배당과 배당세율 개선 등의 내용들이 잘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복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양 프로그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핵리스크는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코스피 5000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복핵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취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코스피 5000에 대해 추가 취재 시에는 복핵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김병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낡은 대기업들 지배구조라든지 낮은 배당성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핵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인데 기사에서 이 부분을 짚어주지 않은 것은 고착화된 저희 리스크라고나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된 리스크가 이미 반영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로 핵무기를 놓고 대결과 갈등을 벌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지수가 천 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증시의 향방을 결정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기사를 다룰 때는 최근에 우리 증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도	구하림의 ‘잇터뷰’, 안무가 리정 님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댄스에 관한 자신만의 철학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 앵커분도 점점 자리를 잡아 가면서 진행이 익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본은 최소한으로만 보시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안서연 위원)	옆에 있는 인터뷰이와의 어떤 소통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질문지를 어느 정도 볼 것인가 근데 질문지를 일부러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다 외우고 숙지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앞에서는 연기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시청자들이 볼 때 자연스럽게 뭔가 임팩트가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인터뷰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명절 불청객 층간소음 갈등...분쟁 조정은 유명무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이 한 집에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평소보다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예를 영화를 비롯하여 실제 보복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갈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관련 단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개인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회적,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도는 명절을 맞이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백명희 위원)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아이টে으로 다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인에게 전가되어서 다들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사회적 이슈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보도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신속히 보도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연계해 정부 내 이견과 논란을 적시적으로 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정 장관의 발언이 갖는 함의와 이로 인한 외교안보 정책 및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북확성기 철거, 접경지역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중지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이슈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한 심층 해석과 더불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다뤄주시길 기대합니다.(박세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는 조금 컬러가 다르다는 느낌도 드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그런 걸 위해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좋은 기회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단독] CT 촬영 한번에 200만원?... '법사각지대' 선납진료비, 이번 보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과 비급여 진료비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 당국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부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연합뉴스TV가 생활 밀착형 이슈를 꾸준히 다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태순 위원)	저희 언론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정책 관련 기사들은 조금 다루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사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이슈들을 생활 밀착형으로 잘 바꾸고 어프로치해서 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독보도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